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김정우*

히브리 시학에서 ‘평행법’(平行法 혹은 對句法, 並行法)은 히브리 시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으로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 번역에 있어서 히브리 시의 평행법 문제는 그 동안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번역이란 원천 언어(the source language)와 수용 언어(the receptor language) 사이의 유희이며,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에 있어서 전자의 중요성을 따르는 ‘형식 동등성’(formal equivalence) 이론과 후자의 중요성을 따르는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혹은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이론 사이의 논쟁은 모든 번역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일 것이다. 그러나 촘스키의 개념을 빌려서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와 ‘심층 구조’(deep structure)라는 관점에서 볼 때,¹⁾ ‘형식 동등성’과 ‘기능 동등성’은 표면 구조에서는 늘 충돌하는 두 개의 대립적 이데올로기나 방법론처럼 보일지 몰라도,²⁾ 심층 구조에서 본다면 이 둘은 그 근본적인 지향점에 있어서 결코 대립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³⁾ 왜냐하면, 두 방법론은 번역의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거나 혹은 ‘번역의 질’을 떨어 뜨려도 좋다는 점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잠 25:11)와 같이 가장 원숙한 원전

*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 1) Noam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5), 16. 촘스키는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의 세 구성 요소로서 ‘구문론, 음성론, 의미론’을 제시하며, 이 세 요소는 장차 우리가 다룰 평행법 분석의 중심 범주가 된다. 그는 문법적 분석에서 ‘의미론적 해석을 결정하는 심층구조’와 ‘음성학적 해석을 결정하는 표면구조’를 나누고 있다.
- 2) 엘리스(Ellis)는 최근의 글에서 이 두 방법론 사이에 화해의 여지가 없으며, “전통적인 형식 일치 혹은 ‘본질적으로 문자적인’ 과정을 따라서, 가능한 한 원래의 어휘와 구가 정확한 영어 대응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 Earle Ellis, “Dynamic Equivalence Theory, Feminist Ideology and three Recent Bible Translations,” *Expository Times* 115 (2003), 7.
- 3) 스타삼(Statham)은 최근의 글에서 ‘기능 동등성’ 이론이 ‘수사학적 과정,’ ‘문법적 단위/소통적 사건,’ ‘의미론/기호학’까지 다루어야 하며, ‘문체의 동등성’까지도 포함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학식 있는 자들을 위한 번역에서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특히 수사학적으로 보다 정교한 부분에 있어서, 수용 언어들 속에 있는 [문체의] 요소들을 최대한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이것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에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이 될 것이다.” Nigel Statham, “Dynamic Equivalence and Functional Equivalence: How do they Differ?” *Bible Translator* 54 (2003), 109.

의 의미에 근거한 최상의 번역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 사실 성경 번역의 방법론에는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 번역의 결과에 있어서는 ‘좋은 번역’과 ‘나쁜 번역’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번역의 ‘기능 동등성’을 방해하는 듯한 히브리 시의 구성적 특징인 ‘평행법’이 번역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는 단지 히브리 시와 우리 말 성경 번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행법적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언어 체계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70인역의 번역과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인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70인역의 번역자(들)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완벽한 평행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평행법을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70인역을 사용하는 신약성경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다.⁵⁾ 전통적인 본문비평에 있어서 우리는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독법이 서로 상충될 때, 두 본문의 저본(底本 *Vorlage*)이 서로 다른 것을 쉽게 전제하며, 크로스(Cross)를 따라서 ‘본문의 유형’(text-types)에 대한 가설들까지 재구성해 보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임마누엘 토브(Tov)는 저본의 차이를 쉽게 전제하기 전에 번역자가 원래의 구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달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번역 과정의 요인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⁷⁾

70인역본을 본문비평적 목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는 이독(異讀)의 문제가 번역 과정 속의 요인들(inner-translational factors)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먼저 분석하여야 한다. ... 번역 과정의 문제가 완전히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우리는 비로소 번역본이 마소라 사본(의 대본)과는 다른 히브리어 독법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 일찍이 얀 드 바르(Jan de Waard)와 유진 나이다(Nida)는 번역을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보면서 ‘기능 동등성 이론’에 대하여, “원전의 의미뿐 아니라 수용 언어에서 본문의 수용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관습적 방식(manner)까지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Jan de Waard & 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9.

5) 70인역의 번역 기술과 평행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G. Taubers Schmidt, *Secondary Parallelism: A Study of Translation Technique in LXX Proverbs* (Leiden; Boston: Brill, 2004)을 보라. Cf. R. T. McLay, Review article in *CBQ* 67 (2005), 328-329. 타우버슈미트는 70인역 잠언 번역자가 ‘완벽한 평행법’을 만들기 위하여 원문을 확대하는 경우(예 잠 3:12, 19-109)와 그리스적 어법에 일치하도록 평행법의 형식을 약화시키는 경우(예 잠 1:26, 110-164)를 열거하고 있다.

6) F. M. Cross,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6, c1958), 120-146.

7) E. Tov,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Jerusalem: Simor, 1997), 40.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를 좀 더 예리하게 제시하고 있다.⁸⁾

우리가 번역의 성격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번역 과정 속의 굴절들 (inner-translational deviations)을 더 철저하게 분석해 낼수록, 우리는 이독(異讀)을 히브리어 저본의 차이로 돌리는 것을 조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번역과정 속에 발생하는 번역의 문제’와 ‘원문의 차이에서 오는 본문 비평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에서 의미 전달 체계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와 문체 자체가 달라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번역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좀더 민감하게 이해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스가랴서 9:9의 마소라 본문과 스가랴서 본문의 70인역 번역과 신약 인용들에서 예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신약성서의 스가랴서 9:9 인용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루어지고 있으며(마 21:1-11;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오직 마태만이 이 사건을 스가랴의 예언과 명백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마태는 70인역을 통하여 스가랴서의 히브리어 본문을 접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가랴서의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의 번역을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마소라 본문과 그 번역은 다음과 같다.

גִּילִי מְאֹד בַּת־צִיּוֹן הֲרִיעִי בֵּת יְרוּשָׁלַם
הִנֵּה מֶלֶכְךָ יָבוֹא לָךְ צְדִיק וְנוֹשָׁע הוּא
עֲנִי וְרִכַּב עַל־חֲמֹר וְעַל־עֵיז בְּרִאֲתָנוֹת:

“크게 기뻐하여라, 딸 시온아. 큰 소리로 외쳐라, 딸 예루살렘아.
보아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⁹⁾
온유하여 나귀 위에 타시며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타신다”(사역).

70인역과 그 번역은 다음과 같다.

8) Ibid., 44.

9) 여기에서 ‘의롭다’(tsadiq)와 ‘구원을 베풀다’(nosha)는 군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triumphant and victorious’(RSV)로 이해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다.

χαῖρε σφόδρα θύγατερ Σιων κήρυσσε θύγατερ Ιερουσαλημ ἰδοὺ ὁ βασιλεὺς σου ἔρχεται σοι δίκαιος καὶ σῶζων αὐτός πραῦς καὶ ἐπιβεβηκῶς ἐπὶ ὑπόζυγιον καὶ πῶλον νέον

“크게 기뻐하여라, 딸 시온아. 큰 소리로 외쳐라, 딸 예루살렘아. 보아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 위에 타신다”(사역).

스가랴서의 예언은 70인역에서 거의 직역이 되고 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스가랴서 마소라 본문의 ‘온유하다’는 70인역에서 ‘겸손하다’로 변한다.

(2) 스가랴서 마소라 본문의 ‘나귀 위에 타시며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타신다’(MT)는 70인역에서 ‘나귀와 어린 나귀 위에 타신다’로 수정된다. 즉, 마소라 사본의 첫 번째 전치사 ‘위에’가 70인역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3) 스가랴서 마소라 본문의 ‘나귀 새끼’¹⁰⁾ 즉 ‘망아지’는 ‘어린 나귀’로 변화되고 있다.¹¹⁾

번역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70인역은 형식 동등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위에 제시된 세 개의 변화는 두 저본(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번역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의 예언은 신약 사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예수께서 곧 체포와 수난으로 이어지는 최종적인 예루살렘 입성의 첫 장면에 예언 성취의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예언과 연관된 아래의 네 본문은 다음과 같다(『개역』).

막 11: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눅 19: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요 12:14-15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

10) 여기에서 ‘나귀 새끼’의 번역 문제는 쉽지 않으며, ‘새끼’는 집합체로 이해될 수도 있다. 좀더 깊은 토론을 요한다.

11) 여기에서 두 번째 ‘나귀’(polos)는 바우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말’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스가랴와 복음서의 문맥에서는 ‘나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W. Bauer, “The ‘Colt’ of Palm Sunday,” *JBL* 72 (1953), 220-229. J. D. M. Derrett, “Law in the New Testament: The Palm Sunday Colt,” *NovT* 13 (1971), 241-258, 특히 248을 보라.

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마 21:4-5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
 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
 승의 새끼**를 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위의 네 본문을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미묘한 차이들이 뚜렷이 제시되
 고 있다.

(1)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스가라서에 나오는 두 마리의 나귀를 한 마리로 만
 들어 버리며, 오직 마태만이 두 마리를 언급하고 있다.

(2) 마가와 누가는 스가라서의 예언과 별 상관 없이 오직 예수의 명령과 필
 요에 의하여 나귀를 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은 간접적으로 ‘선지자
 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언급하며, 오직 마태만이 직접적으로 ‘선지로 하신 말씀
 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완벽한 예언 성취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마가와 누가는 70인역을 따라서 두 번째 나귀인 ‘나귀 새끼’(polos)를 언급
 하지만, 70인역의 용어와는 다른 ‘어린 나귀’(ὄνάριον)를 가져오고 있다.

즉, 오직 마태만이 마가, 누가, 요한과 달리 현재의 장면은 바로 스가라 선지자
 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임을 가장 명백히 밝히면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인용하
 고 있다. 번역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마가, 누가, 요한은 ‘기능 동등성’을 따르
 며, 마태는 ‘형식 동등성’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¹²⁾

이어서 마태는 예수께서 실제로 나귀를 타신 장면에 대하여 모든 사람
 의 상상을 뛰어 넘어 새롭게 묘사하고 있다.

『개역』 마 21:6-7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
 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겼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절은 ‘나귀’(onos)와 ‘나귀 새끼’(polos)를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스가라의
 예언에 대한 70인역의 번역을 가져오고 있다.¹³⁾ 그러나 “그들의 겼옷을 ‘그
 들’(auton) 위에 두었으며,” 또한 “예수께서 ‘그들’(auton) 위에 타셨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12)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인용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차원들이 많이 있
 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번역적 관점에서 문제를 단순화시켜 다루고 있다.

13) 첫 ‘나귀’에 대하여 70인역은 마태(onos)와 다른 용어(hupozugion)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
 경에서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출 34:20의 hupozugion은 출 13:13의 onos와 동일
 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Chiefly of
 the Pentateuch and Twelve Prophets* (Louvain, Dudley: Peeters, 2002), 408, 572.

필자의 『개역』 수정 마 21:6-7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걸옷을 그들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들 위에 타시니라

이 장면에 대한 마태의 묘사는 그가 히브리어 원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고 있다.¹⁴⁾ 즉, 예수께서는 마가, 누가, 요한이 서술하는 바와 같이 한 마리를 타셨는가, 혹은 마태가 세 번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바와 같이 두 마리를 다 타셨는가? 만약 두 마리를 타셨다면, ‘나귀’와 ‘나귀 새끼’ 가운데 어느 것을 타셨는가?¹⁵⁾ 혹은 그는 두 나귀를 번갈아 타셨는가? 마태는 여기에서 예언 성취를 위하여 ‘곡예사 예수’를 만들 정도로 ‘비현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가?

마태는 여기에서 스가라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두 마리를 다 타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가라는 그의 예언에서 장차 올 메시아 왕이 ‘두 마리의 나귀’를 탈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이 점에 대한 마이어(Meier)의 해석을 보라.¹⁶⁾

스가라는 히브리 성서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적 표현 형식인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다. 히브리 평행법에서 동일한 사상이 다른 용어로 두 번 표현되므로, 여기에서도 한 마리의 짐승이 두 개의 다른 용어로 시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마태는 스가라를 오해하고, 두 마리의 짐승이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태는 성경이 예수의 생애에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하며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스가라가 두 마리 짐승을 예언하였으면, 예수께서는 마땅히 두 짐승 위에 타야만 한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마이어는 마태가 만약 박학한 유대인 지도자로서 ‘개종한 랍비’였다면, 결코 이런 실수를 할 수 없었으므로, 그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14) 건드리(Gundry)는 ‘그들 위에’를 ‘그들의 옷 위에’로 해석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이 짐승 위에 둔 옷 위들 위에 앉았다고 해석하지만, 그의 해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Robert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Eerdmans, 1994), 414.

15)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풍유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며, 늙은 나귀는 율법의 명에 익숙한 ‘유대인’을, 젊은 나귀는 ‘이방인’으로 보거나(Origen, Justine Martyr), 혹은 이 두 마리를 ‘모세와 다윗’에 대한 예표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D. Instone-Brewer, “The Two Asses of Zechariah 9:9 in Matthew 21,” *Tyndale Bulletin* 54 (2003), 96에서 인용됨.

16) John P. Meier, *The Vision of Matthew: Christ, Church, and Morality in the First Gospel* (New York: Crossroad, 1991), 21-22.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극소수 의견으로서 제시하게 되었다.¹⁷⁾

정리하자면,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 대한 해석 문제는 단지 구약성서의 현대어 번역의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70인역의 번역 과정에까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신약성서의 구약성서 사용 문제에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신약 성서가 구약 성서를 인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 문제에까지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히브리시의 평행법 해석의 역사

스가라서에 대한 마태의 인용은 현대적 잣대로 볼 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후 1세기 당대의 문학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마태의 스가라서 인용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달리 말하자면, 마태는 예언 성취의 엄격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대착오적인 표현 형식을 만들어 내었는가? 아니면, 그는 그의 시대의 문학적 표현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평행법 해석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크게 (1) 평행법을 잊은 시대, (2) 평행법을 발견한 시대, 그리고 (3) 평행법을 재발견한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마태는 바로 첫 번째 시대의 사람으로서 시대의 관습을 따라 구약성경을 재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1. 평행법을 잊은 시대

히브리 시는 대부분 한 절(verse)이 두 행(li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네 행(quatrain)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고체시(古體詩)에서는 우가릿 시에서와 같이 이행과 삼행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히브리어 문장에서 산문과 운문에 상관 없이 제2행이 제1행을 닮아서, 두 행이 하나의 의미론적 단위를 구성하게 될 때 평행법이라고 한다.

인스톤-브류(Instone-Brewer)에 따르면 주후 70년 경의 랍비들은 성경에서 유사 평행법의 개념을 완전히 거부하였으며, 그들은 성경을 '완벽한 율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어떤 불필요한 중복(No Redundancy)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믿었다.¹⁸⁾ 즉, 좋은 법 조문에는 문장 안에서 그 어떤 단어나 구도 동일한

17) Ibid., 23.

18) David Instone-Brewer, *Techniques and Assumptions in Jewish Exegesis before 70CE* (Tübingen:

의미로 반복되어 사용될 수 없으며, 유사어나 반의어가 사용될 때에는 뭔가 새롭고 구체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 완벽한 범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필요한 반복이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겠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하며, 모든 반복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평행법 전체를 설명하였다. 예로서,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개역』 말 3:18)에 대해 힐렐(Hillel)은 네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다고 보았다.¹⁹⁾ 이미 이 점에 대하여 제임스 쿠겔은 1981년에 확인한 바가 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증을 제시하였다.²⁰⁾

예 1. “그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신 33:10)에서 신명기 미드라쉬 모음집(Sifre)에서는 ‘법도’(1행)와 ‘율법’(2행)은 서로 다른 것이며 전자는 ‘기록된 율법’(written law)을, 후자는 ‘구전’(oral law)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²¹⁾

예 2.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amar)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dabar)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창 21:1)에서 랍비들은 수많은 고심을 하게 되며, 탈굼(Targum Yerushalami)에서는 두 번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대신에 ‘아브라함이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²⁾ 랍비 느헤미야에 따르면, 전자는 ‘천사로 말씀하신 것’이며, 후자는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다. 랍비 예후다에 따르면, 전자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며, 후자는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매일 아들에게 젖을 주는 것’에 대한 약속이다.²³⁾

예 3.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찌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찌어다”(창 49:6)에서, 랍비 시므온과 레위는 제1행의 ‘모의’는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의 ‘무리’를 가리키며(민 13:1-33), 제2행의 ‘집회’는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무리’를 가리킨다고 보았다.²⁴⁾

J.C.B. Mohr, 1992), 166-167.

19) Ibid., 166.

20) J.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 Press, 1981), 96-134.

21) Ibid., 98. 신명기 33:10에서 『표준』은 “그들은 주의 백성 야곱에게 주의 바른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며”로 제시하며, ‘주의 백성’을 첨가하고 있는데, 그 본문 비평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왜 이와 같이 불필요한 첨가를 하였는지 설명하기 힘들다. 어쩌면 번역자는 ‘주의 백성’과 ‘주의 율법’을 대구로 만들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 율법’은 ‘주의 바른길’, ‘야곱’은 ‘이스라엘’과 대구를 이루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 백성’은 불필요하다.

22) Ibid., 99.

23) Ibid., 103.

주후 1세기 랍비들의 평행법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경관에 근거하고 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거룩한 책이며, 해석자들은 “한 절 속에서 최상의 가능한 해석”(the highest possible reading of a verse)을 찾아내어야 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확신과 기질에 있어서 평행법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blind to parallelism)”²⁵⁾

2.2. 평행법을 발견한 시대

평행법에 대한 초기 랍비들의 시각은 중세의 랍비들에게 계승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라쉬(Rash, 1040-1105년)에게 이어지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라쉬의 예들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예 1.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민 23:7)에서 라쉬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달리 보며,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두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만을 사용할 때 충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예 2.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 32:7)에서 라쉬는 제1행의 ‘너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제2행의 ‘어른들’은 ‘탈무드를 지은 지혜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설하고 있다.²⁷⁾

예 3.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출 15:6)에 대하여 라쉬는 제1행의 ‘오른 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제2행의 ‘오른 손’은 원수를 부수기 위하여 일한다고 해석하였다.²⁸⁾

즉, 라쉬는 다른 랍비들과 같이, “어떤 형태의 반복이든지 혹은 명백하게 불필요한 용법들이 있으며, 수사적인 장치(rhetorical features)로 보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시사하는 것’(signifying something)으로 보았다.”²⁹⁾

히브리 시에서 첫 행과 둘째 행이 서로 유사한 의미로 진술될 때, 이 둘은 본질

24) Ibid., 100.

25) Ibid., 139.

26) Ibid., 173.

27) Ibid.

28) Ibid.

29) Ibid.

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랍비들의 해석적 파라다임은 이후에 조금씩 수정되지만,³⁰⁾ 결정적으로 로버터 로우스(R. Lowth, 1710-1878)에 의하여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해석적 파라다임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는 1753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히브리어 시문학을 강연하면서(*De Sacra Poesi Hebraeorum*), 히브리어 시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³¹⁾

시문은 주로 각 절(period)의 행(members) 사이에 어떤 동등성(equality), 유사성(resemblance), 혹은 평행성(parallelis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리하여 두 행에서 어떤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과, 단어들은 단어들과, 마치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서로 조용하게 된다.

그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평행 구절’(parallelismus membrorum)이라는 용어를 히브리 시학과 연관하여 전문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³²⁾ 그는 이사야서 번역에서 “구성 요소들(members)이 일치하는 데서 발생하는 평행법’이라는 구문을 제시하였다.³³⁾ 바로 그는 이 작품에서 평행법에 대한 그 유명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³⁴⁾

한 절 혹은 한 줄이 다른 것과 일치할 때, 나는 평행법이라고 부른다. 한 명제가 주어지고, 두 번째 것이 의미에 있어서 그것에 뒤따라 붙거나, 혹은 그 아래에 붙거나, 일치하거나 대조될 때, 혹은 문법적인 구조 행태가 유사

30) 이와 같은 변화는 라쉬의 손자인 라쉬밤(Rashbam, R. Sameul ben Meir)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라쉬밤은 라쉬가 다룬 출 15:6에 대하여, “첫 행의 사상은 둘째 행이 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그 사상을 완성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반복적 평행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라쉬밤과 동시대의 주석가인 이븐 에즈라(Ibn Ezra 1089-1164)도 민 23:7에 나오는 발람의 말이 ‘강조를 위하여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Ibid., 174. 김히(Kimchi 1160-1235)도 유사적 평행법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음에 대하여서는 A. Baker, “Parallelism: England's Contribution to Biblical Studies,” *CBQ* 35 (1973), 435를 보라.

31) R. Lowth,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 Scriptures*, G. Gregory (1829), trans. II, 43. “Poetica sententiarum Compositio maximam partem constat in aequalitate, acsimilitudine, quadam sive parallelismo, membrorum cujusque periodi, ita ut in duobus plerumque membris res rebus verbis verba quasi demensa et paria respondeant.” Baker, “Parallelism,” 429에서 인용됨.

32) 베이커(Baker)에 따르면, ‘평행법’(parallelism)이라는 단어는 영국에서 1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18세기 영어 사전에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라틴어 *membrum*은 키케로 시대의 수사학에도 사용되었으며, 영어에서 한 문장이나 절(clause)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member)의 개념으로 이미 18세기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33) R. Lowth, *Isaiah: A New Translation;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London, 1778), xxv. Baker, “Parallelism,” 430에서 인용됨.

34) Ibid., x. R. Lowth,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 Scriptures*, G. Gregory (1829), trans.. G. B. Grays, 48-49에서 인용됨.

할 때, 나는 평행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절의 단어들이, 일치되는 줄에서 서로 응답될 때, 나는 평행 용어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로우스는 한 절을 구성하는 두 개의 행이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두 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산문체 문장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은 한마디로, ‘진술’(statement)과 ‘재진술’(restatement)로 설명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평행법에 대한 정의에서 로우스는 평행법을 ‘의미론적’(semantic)인 것과 ‘문법적인(grammatical) 것’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전자를 다시 ‘유사 평행법’(synonymous parallelism),³⁵⁾ ‘반의 평행법’(antithetical parallelism),³⁶⁾ 그리고 ‘종합 평행법’(synthetic parallelism)으로 분류하였으며,³⁷⁾ 이후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도를 따르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범주들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왔다. 브릭스 부부는 위의 세 가지 범주 위에 세가지 범주를 더 추가하여³⁸⁾ (1) 상징적 평행법(emblematic parallelism, 시 37:1-2; 124:6-8; 129:5-8 상),³⁹⁾ (2) 계단형 평행법(stair-case parallelism, 24:8; 3:2-3; 25:1-7; 12:4-5),⁴⁰⁾ (3) 내향적 평행법(introverted parallelism)을 제시하였다.⁴¹⁾ 롱맨(Longman)은⁴²⁾ 이외에도 (1) 전환축 평행법(pivot pattern parallelism),⁴³⁾ (2) 교차대구법(chiasm)을 제시하였다.⁴⁴⁾ 최근에 와서 여러 학자들은 ‘야누스 평행법’(janus parallelism)에

35) ‘유사 평행법’은 두 행에서 서로 다르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예, 잠 27:2).

36) ‘반의 평행법’은 한 문장에서 서로 반대되는 용어를 통하여 하나의 동일한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두 개의 대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시 1:6; 잠 10:1). 이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으로서, Joze Krasovec, *Antithetic Structure in biblical Hebrew Poetry* (Leiden: E.J. Brill, 1984)를 보라.

37) 종합 평행법은 기본적으로 둘째 행 이후 행이 첫째 행이나 둘째 행을 완성하거나, 추가하거나, 혹은 보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유사 평행법과 반의 평행법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모두 종합 평행법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 범주는 결과적으로 남용되었으며 결국 폐기되었다.

38) Charles Augustus Briggs and Emilie Grace Brigg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Edinburgh: T. & T. Clark, 1906-1907), xxxiv-xxxvii.

39) ‘상징적 평행법’은 ‘A와 같이 B도’(Just as A, so B)라는 의미 체계를 제시하며, 두 행 사이의 연관성이 직유나 은유로 주어진다(시 42:1; 26:1).

40) ‘계단식 평행법’은 ‘반복적 평행법’(repetative)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린스타인(Greenstein)은 세 절(혹은 그 이상)의 계단식 패턴이 시편에 약 30개 정도 제시되고 있다고 본다. E. L. Greenstein, “One More Step On the Staircase,” *UF* 9 (1977), 77-86.

41) 브릭스가 ‘내향적 평행법’으로 제시하는 본문들(시 30:9-11; 6:9-11; 34:16-22)은 예로서 분명하지 않으며, 이 범주 자체가 문제가 있다.

42) 트럼퍼 롱맨 III,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한화룡 옮김(서울: IVP, 1989), 127-130.

43) ‘전환축 평행법’은 문장의 중앙에 있는 단어나 구가 앞뒤로 연결되는 형태이다(시 98:2,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A]/ 열방의 목전에[X]/ 그 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도다”[A]).

대하여 많은 연구를 쏟아내고 있다.⁴⁵⁾

로우스로부터 현대의 시편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평행법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별 수정 없이 전수되어 왔다. 그러나 칼 부데는 이미 100년 전에 로우스의 평행법 이해가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 속에서 제시되었음을 비판하였다.⁴⁶⁾

(히브리 시의 한 절을) 유사, 반의, 종합 평행법이라는 세 종류로 구별할 뿐 아니라, ‘평행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임으로써, 그(로우스)는 이 현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이 체계(scheme)를 완성하는 것도 별 유익이 없을 것이다. … 두 행(stichoi) 사이의 관계는 무한하다.

정리하자면, 로우스는 히브리 시에서 한 절을 구성하고 있는 두 행(A, B)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A는 B와 다르다’는 랍비들의 평행법 이해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A는 B와 동일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 대부분의 시편학자들은 로우스의 패러다임으로 히브리 시를 해석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로빈슨(T. H. Robinson)이 로우스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만약 유사성이 없으면, 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시인은 처음으로 돌아가며, 비록 그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단어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바꾸어 사용하지만, 똑같은 것을 다시 말한다”.⁴⁷⁾ 달리 말하자면, 그는 평행법 속에 심미적인 차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두 행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⁴⁸⁾

2.3. 평행법을 재발견한 시대

로우스의 평행법 이해는 쿠겔(Kugel)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성이 없는

44) ‘교차대구법’은 계속되는 평행법의 지루함을 깨뜨리기 위해 동심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A:B//B’:A’, 혹은 A:B:X:B’:A’).

45) Malul Meir, “Janus Parallelism in Biblical Hebrew: Two More Cases (Canticles 4,9.12),” *Bibliche Zeitschrift* 41 (1997), 246-249; John S. Kselman, “Janus parallelism in Psalm 75:2,” *JBL* 121 (2002), 531-532. David Toshio Tsumura, “Janus parallelism in Hab. iii 4,” *VT* 54 (2004), 124-128. 왈키는 큰 단락 속에서 앞 뒤를 연결시키는 기능으로서 야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5-31* (Grand Rapid: W.B. Eerdmans, 2005), 77, 140, 169, 174 등.

46) K. Budde, “Parallelism,” J. Hastings, ed.,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2), 4:4.

47) T. H. Robinson, “Hebrew Poetic Form: The English Tradition,” *VTS* 1 (1953), 128-49.

48) 로우스의 유사적 평행법에 대한 이해는 게비르츠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1963년 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해 준다. S. Gevirtz,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곳에도 유사성을 부여함으로써 예리함은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성경 평행법의 참된 성격은 ‘두 발판 사이를 영원히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곡해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⁴⁹⁾ 그렇지만, 평행법에 대한 로우스의 접근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획기적 작업’이었으며, 평행법을 ‘의미론적 관점’과 ‘구문론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로우스의 제안은 이후 학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의미론적 분석’에 있어서 쿠겔(Kugel)과 알터(Alter)를, ‘구문론적 관점’에서는 콜린스(Collins), 젤러(Geller), 벌린(Berlin) 그리고 오코너(O'Connor)로 이어지게 되었다.

2.3.1. 의미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본 평행법

2.3.1.1. 쿠겔(Kugel)의 평행법 이해

쿠겔은 로우스 이후에 세워진 다양한 평행법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대규모로 파괴해 버리고 가장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이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평행법의 본질’을 논하면서, 제1행과 제2행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묘사하고 있다.⁵⁰⁾

_____ / _____ //

쿠겔이 볼 때 위의 문장 구조는 ‘제1행’-‘휴식’과 ‘제2행’-‘더 큰 휴식’으로 단순화 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2행은 제1행에 ‘부속되며, 따라서 강조된다’(subjoined, hence emphatic). 그는 이 도식을 다음과 같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다.⁵¹⁾

B는 A와 연결되었고, 뭔가 같은 것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단지 평범한 재진술로 기대되고 있지 않다. ... 이는 B가 A 뒤에 나와 거기에 첨가되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B는 A를 구체화하며, 정의하거나, 혹은 의미를 확대하고 또 되돌아 가며, 명백하게 연관된다.

쉽게 말하자면, B는 A와 연결되어, A의 진술을 ‘좀 더 멀리 가져가며’(going beyond), ‘메아리 쳐주고’(echoing), ‘정의하며’(defining), ‘강조하며’(emphatic),

49) J.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 Press, 1981), 15.

50) Ibid., 51.

51) Ibid., 8.

‘보강하여 준다’(reinforcing). 즉, ‘B는 A를 되돌아 보며’(retrospective) 또한 ‘A를 넘어 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prospective). 즉, 대구를 이루는 두 행은 단순한 대칭이나 심미적인 평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B는 A를 지지해 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뒷받침하며, 완성하고 있다. 이런 쿠걸의 입장은 ‘진술’(statement)과 ‘재진술’(restatement)로 설명될 수 있는 로우스의 입장과 달리, ‘진술’(statement)과 ‘연관된 진술’(related statement)로 요약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쿠걸은 평행법을 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이전의 수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평행법의 범주에 대한 ‘분류법’(taxonomy)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린다. 평행법에 대한 수많은 분류들은 쿠걸의 기본적인 입장인 “A가 주어지고, B는 뭔가를 더 말하고 있다”(A, what's more B), 혹은 “A는 진술하며, B는 연관된 강조 진술이다”(statement A, related emphatic statement B) 속에 모두 흡수되어 버리게 된다.

2.3.1.2. 알터(Alter)의 평행법 이해

알터는 쿠걸보다 4년 후에 『성서 시의 예술성』에 대하여 글을 썼으나, 쿠걸만큼 치밀하지 못하며, 대중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평행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알터는 쿠걸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용어만 좀 달리 표현하고 있다. 그는 쿠걸을 따라서 ‘분류법’을 거부하며, 쿠걸과 함께 제2행의 ‘강조적 성격’(emphatic character)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고양화’(heightening) 혹은 ‘강화’(intensification)로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초점화’(focusing), ‘상술화’(specification), ‘구체화’(concretization)로 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라마화’(dramatization)로 이름 짓고 있다.⁵²⁾ 알터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다시 세분화 하여 (1) ‘유사성’(synonymity),⁵³⁾ (2) ‘보충성’(complementarity),⁵⁴⁾ (3) ‘초점화’(focussing)와 ‘강화’(intensification),⁵⁵⁾ (4) ‘인과성’(sequential / consequential)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⁵⁶⁾

52) 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18-19.

53) 알터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어휘’의 반복조차도 강조적인 재진술이 된다(emphatic restatement). 예를 들어서, “Soldier, bid her farewell, bid her farewell”이라는 문장에서 둘째 행은 첫 행을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애인과 헤어지는 상황의 통렬함과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가능성을 부각하여 준다. 문학적으로 이것은 ‘수구반복법’(anaphora)으로 알려져 있다.

54) ‘보충성’은 제1행의 진술을 제2행에서 보충함으로써 문장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준다(예 잠 11:22; 16:2). 즉, 제1행만으로는 의미가 완성될 수 없으며, 제2행이 제1행을 보충해 줌으로써 제1행이 완성된다.

55) Ibid., 29, 33. ‘강화’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제2행에서 제1행보다 ‘더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보다 복잡한 형태로서는 첫 행에 제시된 영상이나 사상이 크레센도(crescendo)를 이루면서 점점 고양되다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알터는 위의 네 가지 범주를 성서 시 가운데 몇 개의 유명한 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쿠걸의 입장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더 깊은 관심은 히브리 시의 ‘절’(line)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story)로 넘어가는 데 있다.⁵⁷⁾ 즉, 그는 궁극적으로 시 속에서도 ‘서사적 움직임’(narrative movement)을 찾아내려고 한다.

2.3.2. 구문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본 평행법

로우스가 제시한 평행법의 두 번째 형식으로서 ‘구문론적 평행법’은 콜린스, 겔러, 벌린 그리고 오코너로 이어지고 있음을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⁵⁸⁾ 구문론적 평행법이란 의미론적 평행법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구문론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 콜린스가 이 새로운 물결을 처음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2.3.2.1. 콜린스(Collins)의 평행법 이해

콜린스는 히브리 시를 문법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중심 요소들(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수식어)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패턴을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⁵⁹⁾

- (1) 오직 하나의 기본 문장을 담고 있는 행.
- (2) 같은 종류의 기본 문장 두 개를 담고 있는 행으로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이 두 문장에 나타나는 것.
- (3) 동일한 종류의 기본 문장 두 개를 담고 있는 행으로서, 그 구성 요소들 가운데 일부가 두 곳에 다 나타나지 않는 것(즉, 생략이 있음).
- (4) 두 개의 다른 기본 문장을 담고 있는 행.

위에 제시된 네 개 유형의 문장 형태 가운데에서 콜린스는 오직 제2의 유형만

56) Ibid., 29. ‘인과성’은 제1행에서 진술한 내용(영상과 사상)이 제2행에서 ‘인과적 결과’로 제시되는 경우이다(예, 잠 15:11; 16:3, 12).

57) Ibid., 27-61을 보라. 그는 제2장을 ‘행(行)에서 이야기로’(From line to story)라는 제목으로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58) 벌린에 따르면, 여기에 쿠퍼(Cooper), 그리스타인(Greenstein), 파르디(Pardee)가 첨가될 수 있다.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18, A. Cooper, “*Biblical Poetics: A Linguistic Approach*,”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6); E. Greenstein, “How Does Parallelism Mean?” *A Sense of Text, JQR Supplement* (Eisenbrauns, 1982), 41-70.

59) T. Collins, *Line Forms in Hebrew Poetry*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23-24.

이 평행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세 번째 유형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⁶⁰⁾ 왜냐하면, 첫 유형과 넷째 유형은 대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콜린스의 기여가 크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콜린스 이전의 학자들은 ‘의미론적 평행법’을 중심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히브리 시의 모든 절에서 평행법을 기대하였지만, 콜린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가 다루는 문장들 가운데 평행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1/4 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이전의 연구들이 평행법을 “히브리 시 행에 대한 ‘순수 이상’(pure ideal)으로 보고, 사 이비 형이상학적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하였음을 적절하게 비판하였다.⁶¹⁾

2.3.2.2. 겔러(Geller)의 평행법 이해

겔러는 콜린스와는 독자적으로 평행법 연구를 하였으며, 로만 야콥슨의 평행법 이해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고 ‘평행법의 주된 양상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확립하며’ 특히 ‘문법적이고 의미론적인 평행법’에 중점을 두겠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⁶²⁾ 그러나 겔러는 문법적 평행법 영역에서 콜린스와는 달리, 문장의 표면 구조만이 아니라 심층 구조를 살피면서 콜린스의 제4 유형인 ‘두 개의 다른 기본 문장을 담고 있는 행’도 문법적인 변형을 이룰 때 평행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로서 그는 사무엘하 22:14를 제시한다.

יְרַעַם מִקְשָׁמִים יְהוָה
וְעֲלִיזוּ יַמּוֹ קוֹלוֹ׃

“야웨는 하늘에서 천둥을 치며 / 엘론은 그의 소리를 발한다!”

콜린스가 볼 때 위의 문장은 두 개의 다른 기본 문장(자동사+주어//주어+타동사+목적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겔러가 볼 때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야웨는 천둥치다 / 하늘에서/ 엘론은 그의 소리를 발한다.”

이 문장은 다시 “(1) 야웨는 하늘에서 천둥을 치다, (2) 엘론은 하늘에서 천둥을 치다, (3) 야웨는 하늘에서 그의 소리를 발한다, (4) 엘론은 하늘에서 그의 소리를 발한다”라는 네 개의 문장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시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

60) 콜린스가 세 번째 유형을 정상적인 평행법으로 보지 않은 것은 그가 여전히 ‘두 문장 사이의 유사성’이 평행법을 구성한다는 로우스의 주술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61) Ibid., 92.

62) S. Geller, *Parallelism in Early Biblical Poetry*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4.

라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⁶³⁾ 즉, 겔러는 콜린스가 표면 구조를 보고 대구법을 포기한 문장에서도 평행법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으며, 그는 히브리어 고시(古詩)들을 중심으로 정교한 문법적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다.

2.3.2.3. 오코너(O'Connor)의 평행법 이해

오코너의 중심 관심은 평행법 자체에 있지 않고 시 분석에 있으며, 이것을 위하여 그는 콜린스와 겔러가 관심을 가졌지만 정의하려고 하지 않았던 ‘시행’(poetic line)을 비평적 관점에서 정의하려고 한다. 즉,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 시 행을 결정하느냐?’에 있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히브리어 문장 구성 요소로서 (1) 서술어(predicator), (2) 구성 요소(constituent), (3) 단위(unit)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⁶⁴⁾ 히브리 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행의 형식’은 “하나의 절(one clause)이나 두 개 혹은 세 개의 단위로 구성된 두 개 혹은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한다.⁶⁵⁾

오코너는 평행법에 있어서 ‘단어의 쌍’(word pairs)과 행의 차원에서 ‘문법적 평행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평행법 이해는 기본적으로 ‘짝’(matching)과 ‘수식문구’(tropes)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그가 볼 때, ‘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이어지는 한 쌍(dyads)의 단어이며, 이것은 문법적으로 ‘표면구조’에 나타나며, ‘평행법이라고 말하는 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평행법을 만드는 오직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⁶⁶⁾ 그는 파니니(Panini)의 일곱 법칙을 이용하여 한 쌍의 단어가 어떤 법칙을 따라 평행을 이루는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이런 법칙이 대부분의 언어에 나타난다는 점이다.⁶⁷⁾ 달리 말하자면, 한 단어가 앞서고 다른 것이 뒤따르는 것은 ‘의미론적인 평행법’ 때문이 아니라, ‘음성학적인 이유’를 비롯한 언어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⁸⁾ 따라서 우리는 첫 행에 있는 단어와 둘째 행에 있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지나친 강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오코너는 논증하고 있다.

63) Ibid., 17.

64)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Wilfred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6), 108을 보라.

65) O'Connor, "Line Form," 87.

66) Ibid., 119.

67) Ibid., 98-100.

68) Ibid., 99.

오코너가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는 ‘수식문구론’(tropes)에 있어서 그는 (1) 반복법(시 106:10), (2) 이명식(binomination, 민 23:8, 23), (3) 등위(coordination, 시 106:16), (4) 합성(combination, 시 106:43) 등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⁶⁹⁾

2.3.2.4. 벌린(Berlin)의 평행법 이해

그 동안 위에서 제시된 콜린스, 겔러, 오코너로 이어지는 문법적 평행법 개념은 모두 로만 야콥슨의 평행법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야콥슨은 일찍이 평행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시를 구성하고 있는 양상들의 상호관계를 전반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⁷⁰⁾

포괄적인 평행법(pervasive parallelism)은 불가피하게 언어의 모든 차원들(levels)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 즉 언어의 독특한 특성, 내재적인 것과 운율적인 것, 형태소적이며 구문론적인 범주와 형식들, 어휘적 단위들과 그들의 의미론적인 부류들이 서로 수렴되고 갈라지는 것들이 모두 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위에 인용된 야콥슨의 입장은 겔러와 벌린에게로 이어지며,⁷¹⁾ 벌린에게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완성된다.⁷²⁾

차원(Level)	양상(Aspect)		
	문법	어휘-의미론	음성학
단어	형태소적 ‘일치’와/혹 ‘대조’	단어의 쌍	음성적 쌍
행 혹은 절	구문론적 ‘일치’와/혹 ‘대조’	행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	행의 음성학적 일치

즉, 벌린에 따르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은 ‘단어’와 ‘행’ 혹은 ‘절’의 차원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으며,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문법적’, ‘어휘-의미론적’, ‘음성

69) Ibid., 109-14

70) R. Jakobson, “Grammatical Parallelism and Its Russian Facet,” *Language* 42 (1966), 423.

71) S. Geller, *Parallelism in Early Biblical Poetry*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1;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26.

72)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29.

학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모든 관점에서 평행법이 고찰되어야 함을 논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별린은 현대 언어학적 개념 가운데 핵심적 개념을 이루고 있는 '동치적 관계'(paradigmatic relationship)와 '병치적 관계'(syntagmatic relationship)가 평행법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일치성'(혹은 유사성)과 '연관성'의 관점에 대입시키고 있다.⁷³⁾ 시문이란 결국 '선택'과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행은 결국 이 두 범주 속에서 의미전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

우리는 '히브리시 평행법 번역'의 문제를 스가랴서 9:9의 복음서 인용에 나타난 제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평행법 해석사를 (1) '평행법을 잇은 시대', (2) '평행법을 발견한 시대', 그리고 (3) '평행법의 기능을 재발견한 시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해석사적 관점에서 스가랴의 예언에 등장하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 '평행법을 잇은' 주후 1세기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마태는 당대의 해석적 전통을 따라서 두 마리의 나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스가랴의 예언을 평행법을 발견한 로우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유사평행법이므로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평행법을 재발견한 쿠걸의 관점에서 본다면, 스가랴가 제1행에서 말한 '나귀'는 제2행에 나오는 '나귀 새끼'에 의하여 초점화 되므로, 예수께서는 바로 '나귀' 가운데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된다.

<주요어>(Keyword)

유사 평행법, 반의 평행법, 종합 평행법, 전환축 평행법, 교차대구법, 야누스 평행법

synonymous parallelism, antithetical parallelism, synthetic parallelism, pivot pattern parallelism, chiasm, janus parallelism

73) Ibid., 27.

<참고문헌>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85.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 Baker, A., "Parallelism: England's Contribution to Biblical Studies," *CBQ* 35 (1973), 429-440.
- Bauer, W., "The 'Colt' of Palm Sunday," *JBL* 72 (1953), 220-229.
- Berlin, A.,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 Boling, R. G., "Synonymous Parallelism in the Psalms," *JSS* 5 (1960), 221-255.
- Briggs, Charles Augustus & Briggs, Emilie Grac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Edinburgh: T. & T. Clark, 1906-1907.
- Budde, K., "Parallelism," J. Hastings, ed., *Dictionary of the Bible*, New York: C. Scribner's sons, 1902.
- Chomsky, Noam,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5.
- Chomsky, Noam,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The Hague: Mouton, 1972.
- Collins, T., *Line Forms in Hebrew Poetry*,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 Cooper, A., "Biblical Poetics: A Linguistic Approach,"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6.
- Cross, Frank Moore,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6, c1958.
- Derrett, J. D. M., "Law in the New Testament: The Palm Sunday Colt," *NovT* 13 (1971), 241-258.
- De Waard, Jan & Nida, E. 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 Ellis, E Earle, "Dynamic Equivalence Theory, Feminist Ideology and Three Recent Bible Translations," *Expository Times* 115 (2003), 7-12.
- Geller, S., *Parallelism in Early Biblical Poetry*,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 Gevirtz, S.,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Atlant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Greenstein, E., "How Does Parallelism Mean?" *A Sense of Tet, JQR Supplement*,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82, 41-70.

- Gundry, Robert H.,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 Instone-Brewer, David, *Techniques and Assumptions in Jewish Exegesis before 70CE*, Tuebingen: J.C.B. Mohr, 1992.
- Instone-Brewer, David, "The Two Asses of Zechariah 9:9 in Matthew 21," *Tyndale Bulletin* 54 (2003), 87-98.
- Jakobson, R., "Grammatical Parallelism and Its Russian Facet," *Language* 42 (1966), 399-429.
- Krasovec, Joze, *Antithetic Structure in biblical Hebrew Poetry*, Leiden: E.J. Brill, 1984.
- Kselman, John S., "Janus Parallelism in Psalm 75:2," *JBL* 121 (2002), 531-532.
- Kugel, J.,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 Lowth, R.,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 Scriptures*, G. Gregory, trans., Boston; Crocker & Brewster; New York: J. Leavitt, 1829.
- Lowth, R., *Isaiah. A New Translation;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London, 1778.
- Malul, Meir, "Janus Parallelism in Biblical Hebrew: Two More Cases (Canticles 4,9.12)," *Biblische Zeitschrift* 41 (1997), 246-249.
- Meier, John P., *The Vision of Matthew: Christ, Church, and Morality in the First Gospel*, New York: Crossroad, 1991.
- Miller, Jr. P. D., "Meter, Parallelism and Tropes: The Search for Poetic Style," *JSOT* 28 (1984), 99-106.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Chiefly of the Pentateuch and Twelve Prophets*, Louvain, Dudley: Peeters, 2002.
- O'Connor, M. P., *Hebrew Verse Structure*,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79.
- Statham, Nigel, "Dynamic Equivalence and Functional Equivalence: How do they Differ?" *Bible Translator* 54 (2003), 102-111.
- Tauberschmidt, G., *Secondary Parallelism: A Study of Translation Technique in LXX Proverbs*, Leiden; Boston: Brill, 2004.
- Tov, E.,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Jerusalem: Simor, 1997.
- Watson, Wilfred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6.

<Abstract>

The Burden of Parallelism in the Bible Translation: Part I - A Theoretical Foundation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burden of parallelism in Bible translation which presupposes and requires the removal of redundancy for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source language and the receptor language. However, the presence of parallelism in the Hebrew Bible as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of biblical poetry hinders the dynamic and functional equivalence,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receptor languages in the present world does not have an epistemology and style of stating one thing and restating another in parallel in the same sentence. The issue at stake is, therefore, raised particularly from the use of Zech 9:9 by the LXX and the four Gospels in the New Testament (Mk 11:7; Lk 19:35; Jn 12:14-15; Mt 21:4-5). It was found that the two animals mentioned in the Messianic prophecy of Zechariah, namely, an ass and a colt, are fully quoted only in the Gospel of Matthew, but are reduced to one animal, a colt, in three Gospels (Mk 11:7; Lk 19:35; Jn 12:14-15). Moreover, the author of the Gospel of Matthew repeatedly uses the preposition 'on' in front of the 'ass' as well as the 'colt.' In this way, he gives readers an impression that he might have misunderstood the way how parallelism functions in biblical poetry. In order to solve the anomaly of quotation in Matthew and to find the best way to translate biblical parallelism, the writer of this paper delves into the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parallelism. Following the model of J. Kugel, he divides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into three main periods: 'the forgetting of parallelism' by the Rabbis from the first century A.D. to the Middle age, 'the discovery of parallelism' by R. Lowth (A.D. 1753), and 'the rediscovery of the function of parallelism' by J. Kugel and R. Alter from the perspective of semantics, and by T. Collins, S. Geller, M. O'Connor and A. Berlin from the perspective of grammar and linguistics. In this way, the author of this paper tries to present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biblical parallelism.